



소개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일체형 메탈 브레이슬릿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으로 워치메이킹의 정밀함과 정확성에 찬사를 보내는 새로운 컬렉션

주요 특징:

- **새로운 컬렉션:**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를 도입한 세 가지 새로운 모델
- **새로운 디자인:** 세련된 비율의 케이스를 강조하는 일체형 메탈 브레이슬릿, 도핀 시그니처를 반영한 독특한 형태의 링크
- **새로운 무브먼트:** 꼬뜨 드 제네브, 페를라주, 베벨링 브릿지 등 정교한 마감을 갖춘 칼리버 738 으로 구동되는 데이트 파워 리저브 모델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도입과 함께 예거 르쿨트르는 유서 깊은 마스터 컬렉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은 날짜 디스플레이, 퍼페추얼 캘린더, 파워 리저브와 날짜 결합 모델 등 서로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갖춘 세 가지 새로운 모델로 출시됩니다. 특히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738 로 구동되는 파워 리저브와 날짜 기능의 시그니처 조합이 돋보입니다. 데이트 파워 리저브 모델은 스틸 소재로, 나머지 두 모델은 스틸 또는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로 출시됩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케이스와 일체형 메탈 브레이슬릿은 현대적인 실루엣과 기능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모든 혁신에 깃든 까다로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거 르쿨트르 하이 워치메이킹 인증 HPG(High Precision Guarantee)를 도입했습니다.

마스터의 이름으로 이어온 80 년의 혁신

고성능, 독보적인 디자인, 인체공학적 편안함을 결합한 ‘이상적인 현대식 시계’를 지향하는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서 예거 르쿨트르가 쌓아온 190 년의 탁월한 유산을 계승합니다. 특히 이번 새로운 컬렉션은 1950 년대부터 마스터의 이름으로 제작해 온 80 년의



매뉴팩처 역사가 집약된 결과물로, 그간의 연구 성과와 발전된 기술,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해 온 고유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1950년대: 20세기 중반은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전환점으로, 전쟁 후 기술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정확성과 내구성, 기능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퓨처매틱과 지오피직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부터 메종이 강조해 온 기술적 성능은 순수한 디자인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개선된 방수 기능의 전통적인 원형 케이스와 뛰어난 가독성을 갖춘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컬렉션의 핵심이 되는 마스터라는 이름은 1957년 마스터 마리너의 출시와 함께 처음 등장하며 전설적인 라인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1973년: 예거 르쿨트르는 마스터 라인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 마스터 마리너 크로노미터를 선보였습니다. 진귀한 메탈 소재의 드레스 워치와 견고한 스포츠 워치가 명확히 구분되던 시기에, 마스터 마리너 크로노미터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은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시계를 제시했습니다. 매끈한 스틸 케이스와 일체형 메탈 브레이슬릿을 갖춘 이 모델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럭셔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으며, 오늘날 새로운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1992년: 새로운 마스터 컨트롤 컬렉션을 대표 라인으로 내세우며, 메종은 ‘1,000 시간 컨트롤’이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이 혁신적인 프로세스는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시계 전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테스트함으로써 업계의 표준을 바꾸었습니다.

변치 않는 신뢰성의 새로운 상징

혁신을 향한 매뉴팩처의 끊임없는 열망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씬, ‘HPG(High Precision Guarantee)’를 선보입니다. 이 씬은 정교한 미적 마감뿐만 아니라 시계의 높은 정확성까지 보증합니다. 특히 출원 중인 더욱 강화된 프로토콜을 통해 실착용 환경을 재현하여 조립된 시계를 엄격하게 테스트한 뒤 인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HPG’라는 이름은 예거 르쿨트르의 유산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이름은 1970년 높은 정확성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메종의 선구적인 4Hz 칼리버 916을 탑재한 모델의 다이얼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HPG 씬은 고도, 충격, 자세, 온도의 네 가지 핵심적인 실착용 요소를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고도: 해수면부터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가 위치한 1,004m 까지의 환경을 재현하여, 칼리버 자체에 가해지는 기압 변화를 정밀하게 테스트합니다.

나머지 요소는 시계를 완전히 조립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전방위 충격 테스트: 시계의 여러 표준 측정 위치에서 가해지는 25G~50G 범위의 충격을 견디는지 확인합니다.

자세: 다양한 자세 변화와 고정 자세를 교차 반복하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온도: 휴식 상태를 가정한 18° C 의 낮은 온도부터 활동 시의 따뜻한 35° C 까지, 큰 폭의 온도 변화를 주어 테스트합니다.

HPG 전용으로 개발된 정교한 장비는 모든 시계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차 반복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안정적인 휴식' 단계에서는 침대 옆 탁자에 시계를 풀어둔 것과 같은 정지 상태를 재현하고, '활동 사이클'을 통해 일상적인 착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변화를 구현합니다. 이 종합 테스트는 3 일에 걸쳐 진행되며, 일주일간의 실제 착용 환경을 재현합니다. 이틀간은 활동적인 평일 환경을 재현하는 데 집중하며, 고정 자세와 다양한 자세 변화, 충격 테스트를 교차 반복한 후 다시 고정된 자세로 테스트를 이어갑니다. 셋째 날은 평온한 주말 상황을 구현하여, 시계를 테이블 위에 풀어둔 것처럼 안정적인 고정 자세로 둡니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을 통합함으로써 이상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정교한 시계 메커니즘이 최적의 크로노미터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품질을 인증하는 HPG 엠블럼이 시계 케이스백에 각인됩니다.

HPG 싼 외에도 새로운 테스트의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권위 있는 COSC 싼까지 획득했습니다. 이는 ‘크로노미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공신력 있는 싼입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HPG 라벨은 미학적 완성도를 증명하는 싼이기도 하며, 칼리버의 모든 부품에 정교한 마감이 더해졌음을 보증합니다. 여기에는 페를라주, 꼬뜨 드 제네브, 서쿨러 스무딩, 버니싱, 폴리싱 처리된 스크루 헤드, 리니어 스무딩, 싱크 가공 루비, 베벨링 등 여덟 가지 전통 장식 기법이 포함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정밀함과 정확성을 강조한 앙투안 르쿨트르의 유산을 계승하여 실용적 목적에서 시작된 전통 마감 기법을 예술적 장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페를라주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본래 워치메이커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이 기법은 실용적 목적이 사라진 오늘날에도 정교한 미학적 시그니처로 남아 기능적 장인 기술이 어떻게 고결한 예술로 승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정교한 장식 예술을 동시에 추구하는 태도는 파인 워치메이킹을 향한 메종의 통합적인 비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스터 스토리의 새로운 챕터

문화와 디자인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시계 카테고리를 엄격히 나누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세련된 현대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확성과 신뢰성은 물론, 첫눈에 사로잡는 매력과 남녀 모두를 만족시키며 매우 편안한 착용감까지 갖춘 시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은 빈티지 코드를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독보적인 디자인 시그니처를 보여줍니다. 매끄럽고 정교한 비율의 케이스, 완전한 일체형 메탈 브레이슬릿, 그리고 화려함과 절제미가 공존하는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이 독특한 미학은 디자인 전반을 관통하는 도핀 시그니처를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브레이슬릿부터 다이얼까지 흐르는 실루엣이 시각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번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세 가지 모델에서 엿볼 수 있듯, 전체적인 디자인은 볼륨감과 형태가 어우러진 정교한 유희와도 같습니다. 폴리싱과 브러싱 처리된 표면이 대조를 이루며, 시그니처 형태들이 반복되고 맞물려 미묘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케이스의 가장 넓은 부분에서 브레이슬릿의 첫 번째 링크로 이어지는 유려한 라인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완벽한 일체감을 완성합니다. 폴리싱 처리된 베젤, 크라운, 러그 베벨은 케이스 측면과 일체형 브레이슬릿의 새틴 브러싱 마감과 대조를 이루며 찬란한 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마감의 대비는 케이스에서 손목 전체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라인에 역동적인 시각적 효과를 더합니다.

3 줄 브레이슬릿은 최상의 유연함과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중앙 링크는 세로 방향 새틴 브러싱 처리된 표면과 입체적인 삼각면의 고광택 폴리싱 링크가 교차하며 세련된 조화를 이룹니다. 이렇듯 예리한 각도는 바깥쪽 두 줄의 링크로 이어지며 대담한 V 자형 베벨과 고광택 폴리싱 마감의 강렬한 대비를 완성합니다. 브레이슬릿과 다이얼의 디자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이러한 각도는 슬림한 도핀 핸즈와 그와 어울리는 애플리케이션 인덱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다이얼은 선레이 브러싱 마감을 통해 풍부한 색감과 은은한 스모키 텍스처를 구현하며, 디스플레이를 돋보이게 하는 매력적인 배경을 완성합니다. 크로노미터의 기술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페리페럴 챕터 링에는 분 단위와 초 단위를 함께 표기했으며, 각 시간 인덱스 위치에 맞춰 5 분 단위마다 도트 마커를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백과 오픈워크 디자인의 22K 핑크 골드(916/1,000) 와인딩 로터는 무브먼트의 섬세한 마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시각적 우아함은 미적 아름다움과 기술적 정교함을 결합한 매뉴팩처의 숙련된 노하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컴팩트한 볼륨, 그리고 크로노미터 성능 측면에서 이론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성능은 여러 기술적 혁신을 집약한 결과로, 특히 칼리버 특유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적 완성도를 위해 센트럴 세컨즈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것은 슬림한 실루엣을 고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어 트레인을 독창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휠을 병렬로 배치하여 무브먼트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최적의 에너지 전달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실리콘 이스케이프먼트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자기장의 영향과 마모를 최소화했습니다. 높은 진동수를 제공하는 4Hz(시간당 진동수 28,800 회) 밸런스 휠은 충격이나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최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다이얼 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미닛 트랙을 세분화해 0.25 초 단위까지 정교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설계는 크로노미터 인증 무브먼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형태와 기능의 조화를 향한 이러한 노력은 브리지 장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새겨진 꼬뜨 드 제네브는 와인딩 로터와 완벽한 결을 이룹니다. 브리지, 특히 밸런스 콧 주변은 설계를 전면 수정하여 한층 간결하고 건축적인 라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시각적인 깊이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높여줍니다. 모든 브리지는 45 도로 베벨링 처리되었으며 주얼은 싱크 가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각적 대비를 위해 브리지 위로 골드 휠이 돋보이게 배치했으며, 실버 그레이 톤의 스크류는 무브먼트의 전체적인 색조와 조화를 이룹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데이트 파워 리저브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새로운 매뉴팩처 무브먼트, 칼리버 738 은 파워 리저브와 날짜 디스플레이의 독창적인 결합이 특징입니다. 무브먼트는 두께가 9.2mm 에 불과한 39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장착되었습니다. 다이얼 디자인은 1951 년 출시된 퓨처매틱에 경의를 표하며, 9 시와 3 시 방향을 잇는 축 위에 정교하게 균형을 맞춘 두 개의 원형 서브 다이얼을 배치했습니다.



왼편의 파워 리저브 눈금에는 동력의 부족함을 알리는 레드 섹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날짜가 자리하며, 빨간색으로 강조된 '31'은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의 레드 섹션과 조화를 이룹니다. 메인 다이얼과 같은 블루 그레이 톤으로 마감된 서브 다이얼은 미세하게 인그레이빙된 원형 패턴의 아주레 마감을 통해 은은한 대비를 선사합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의 모든 블루 다이얼과 마찬가지로, 중심부의 밝은 톤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두워지는 섬세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칼리버 738 은 고성능을 향한 예거 르쿨트르의 비전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구현했습니다. 메종의 모든 무브먼트와 마찬가지로 설계와 디자인,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이 매뉴팩처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께가 4.97mm 에 불과한 무브먼트는 4Hz(시간당 진동수 28,800 회)의 진동수로 작동하며 70 시간의 강력한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과 컴팩트한 볼륨감, 그리고 크로노미터 성능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매뉴팩처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퍼페추얼 캘린더는 네 개의 서브 다이얼로 구성된 풀 캘린더 디스플레이를 선보입니다. 12 시 방향에는 월과 연도, 3 시 방향에는 요일, 9 시 방향에는 날짜가 자리하며, 6 시 방향에는 문페이즈 인디케이터를 배치했습니다. 칼리버 868 은 퍼페추얼 캘린더 무브먼트이므로 일수가 다른 달과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시계의 동력이 유지되는 한 2100 년까지 별도의 수동 조작 없이도 정확한 날짜를 표시합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캘린더 표시 기능은 서로 동기화되어 있으며, 단 하나의 코렉터로 동시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싼 무브먼트 제작에 대한 예거 르쿨트르의 전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칼리버 868 은 두께가 4.72mm 에 불과합니다. 덕분에 지름 39mm, 두께 9.2mm 의 우아하고 슬림한 케이스 구현이 가능했습니다. 두 가지 소재로 출시되는 모델 중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는 차가운 톤의 블루 그레이 그라데이션 선레이 다이얼을, 핑크 골드 케이스에는 따뜻한 브론즈 톤의 선레이 다이얼을 매치했습니다.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서브 다이얼은 오팔린 외부 링과 중앙의 아주레 마감이 조화를 이룹니다. 문페이즈의 달은 18K 핑크 골드(750/1000) 버전에서는 해머드 골드(958/1,000)로, 스틸 버전에서는 플래티넘 금박(999/1,000)으로 빛나며, 간결하면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각 인디케이터는 7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차세대 칼리버 868 로 구동됩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데이트는 직경 38mm, 두께 8.4mm 의 정교한 비율이 특징이며, 어떤 손목에도 잘 어울리는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이 모델은 케이스와 선레이 다이얼을 통해 매력적인 컬러 조합을 보여줍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차가운 톤은 블루 그레이 그라데이션 다이얼과, 18K 핑크 골드(750/1,000)의 따뜻한 톤은 브론즈 컬러 다이얼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최신 버전의 오토매틱 매뉴팩처 칼리버 899 를 탑재한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데이트 또한 70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위치메이킹 가치를 혁신하고자 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끊임없는 노력을 담아,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은 기술력과 세련미의 현대적인 조화를 선보입니다. 이는 180 여 가지의 위치메이킹 기술을 한데 모은 메종의 발레드주 통합 매뉴팩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상세 정보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데이트 파워 리저브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크기: 직경 39mm x 두께 9.2mm

칼리버: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칼리버 738

기능: 시, 분, 초, 날짜,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파워 리저브: 70 시간

다이얼: 블루 그레이 선레이 브러싱 그라데이션, 아주레 마감의 대칭형 서브 다이얼 디스플레이

케이스백: 사파이어 크리스털

방수: 5bar(50m)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일체형 3 줄 테이퍼드 브레이슬릿

버클: 일체형 더블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4168120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퍼페추얼 캘린더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39mm x 9.2mm 두께



칼리버: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칼리버 868

기능: 시, 분, 초, 연도, 월, 요일, 날짜, 문페이지즈

파워 리저브: 70 시간

다이얼: 블루 그레이 그라데이션 또는 브론즈 컬러 선레이 브러싱 마감, 서브 다이얼에 오팔린 및 아주레 마감

방수: 5bar(50m)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의 일체형 3 줄 테이퍼드 브레이슬릿

버클: 일체형 더블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4178180, 스틸

Q417216J, 핑크 골드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데이트

케이스: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직경 38mm x 두께 8.4mm

칼리버: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칼리버 899

기능: 시, 분, 초, 날짜

파워 리저브: 70 시간

다이얼: 블루 그레이 그라데이션 또는 브론즈 컬러 선레이 브러싱 마감

방수: 5bar(50m)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의 일체형 3 줄 테이퍼드 브레이슬릿

버클: 일체형 더블 폴딩 버클

제품 번호: Q4158120, 스틸

Q415216J, 핑크 골드



밸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외딴 계곡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세대가 지난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유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되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